

에도시대가 되면서 막부 중심의 막번 체제가 확립되었다. 그 정보 전달 방법으로 ‘고찰장’이 도시, 역참, 재향 등에 설치되었다.

초기에는 로주(老中, 관리)가 교체될 때마다 법도(法度)와 정서(掟書) 등이 고찰로 공포되었다. 쇼토쿠 연간 이후(1711년~) 바뀌지 않았던 고찰은 그대로 ‘정찰(定札)’로 막부 말기까지 유지되었다. 그 밖에 ‘각(覺)’ 등의 고찰도 있었는데 시기에 따라 게시 매수가 달랐다.

야부하라주쿠의 고찰장(고한교(御判形)라고도 불림)은 높이 2칸 3척(약 4.5m), 폭 2칸 4척(약 4.8m)의 구조물로 이 자리에 있었다.

왼쪽 내리막길(구 나카센도) 일대를 출구라 하여 교토 쪽에서 오는 역참 입구 부근, 옆으로 구부러지는 가기노테(鍵の手)와 같은 길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.

게시된 고찰은 역참마을답게 정삼찰(定三札: 인륜 중시, 집단행위 금지, 기독교 금지)와 타임찰(駄賃札: 요금표) 등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.

소무라 향토관에는 이 역참에 게시되었던 막부 말기의 정삼찰 중 하나가 있다.